

2	I. 들어가며
4	II. 개고기와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고찰
5	1. ‘견공 잔혹사’의 기억에서 개고기 반대의 운동으로
5	2. 문화상대주의의 함정과 한계
6	3. 개고기 반대의 본질
9	4. 동물에 대한 감성과 연민
12	III.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비판
16	IV. 실태 조사
17	1. 개 사육 도살 실태와 개고기 유통에 대한 통합 정리
	가. 개 및 개고기 공급 경로
	나. 비위생적인 사육과 항생제 오남용의 필연성
	다. 전기 도살의 잔혹성
	라. 개고기 산업, 인도적 기준 정립의 불가능성
23	2. 개고기 산업 합법화 위험성에 대한 예측
24	V. 결론
25	부록
	사육 및 도살, 유통 실태

I. 들어가며



1980년대 초, 한국은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을 거쳐 피폐화된 경제의 재건에 몰두해 왔고 채 30년도 걸리지 않아 이루어낸,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회자되는 고도성장의 결과에 따른 국민적 자부심이 절정에 도달해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작스럽게 닥친 국제적인 비난의 초점은 ‘개고기’ 문제였다. 지금까지도 여전하지만, 당시의 우리 국민에게 외국의 비난을 더욱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던 문제였던 것이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한국 정부는 그 어떤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개 식용화 금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내세우지도 못했다. 그저 은근슬쩍 뒤로 감추기 식으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비껴나갔다. 또한 당시의 한국 사회가 서슬 퍼런 군부정권 하에 있었던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사회의 비난에

항의했다는 뚜렷한 한국 사회의 반론 자료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 유치 당시의 이런 분위기와는 지극히 대조적으로, 2002년 월드컵의 한국·일본 공동 유치가 결정된 1996년 이후 한국 내에서는 ‘개고기는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일기 시작했다. 특히 김홍신 전(前) 국회의원은 ‘문화상대주의’를 확고한 근거로 내세워 개고기를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개고기 찬반 논쟁의 화두를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개 식용화 찬성자들은 개 식용화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 ‘문화상대주의’, ‘문화제국주의’라는 공격으로 일관하며 여론을 확산해 나갔다. 하지만 유독 개고기 문제에 대해서만 문화상대주의가 비중 있게 선택되고 취해져 극단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언론도 이러한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담론이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 식용을 비난하는 국제 사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주로 문화에 대한 자존심에 상처받은 항변으로만 일관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성찰해 봐야 한다.

몇 년씩 정들여 기르던 누렁이가 보신탄용으로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는
어린이의 눈물에 과연 문화제국주의의 추종이라는 비난을 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육식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공장식, 집약적 축산은 오직 생산성만을 추구하고 있다. 오로지 공급량을 늘려 필요 이상의 수요를 창출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용 목적 개의 사육과 유통 현장을 조사하며 향후 산업의 추이를 가늠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역시 음성적으로 대량의 자본 투입을 통한 대형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이미 영세 농가의 생계형 생활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한국인은 개고기를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육류로 소비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관습적으로 식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 정서적인 배경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간혹 서구의 사례가 인용되면서 개고기를 일반화된 식문화로 연결하려는 주장을 접하게 되는데, 프랑스, 스위스, 하와이 등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도 과거 개를 식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고, 극히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관습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인용해 개고기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식문화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현재 그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저 과거에 존재했었던, 혹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관습을 예시해 개고기를 일반화된 식문화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



Ⅱ. 개고기와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고찰



1. ‘견공 잔혹사’의 기억에서 개고기 반대의 운동으로

남유철¹⁾은 저서 ‘개를 위한 변명’의 프롤로그에 도살의 기억을 회고하고 있다. 작가는 유년기에 목격한 도살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쇠창살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개를 힘들게 끌어 내고 있었다. 개의 목을 매달은 채 도끼로 등을 내리찍어 죽이던 그 참혹한 광경, 그리고 방 안에서 그 광경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만 되면 민가에 근접한 산이나 냇가에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드물게나마 집 안마당에서 개를 도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를 도살하는 방법도 잔인했다. 그나마 목을 졸라 죽이는 도살은 인도적인 것에 속했다. 대개 개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긴 후에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가마니에 넣은 후 불태웠다. 개는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는 가마니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치면서 죽는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도살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일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다. 사람들은 동물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끼는 심적인 동요는 있을지라도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지나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동시에 동물 도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극소수나마 채식에 결심하기도 하고 혹자는 동물을 죽이는 방식의 잔인함에 대항할 방안을 생각하기도 한다. 동물 도살 중에서도 개의 도살은 비교적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국 내의 개고기 반대 운동의 시작은 도살의 잔인성에 대항하는 소수로 부터 출발하는데, 잔인한 개 도살에 대한 분노는 개 도살 금지를 호소하게 되며 조직적인 동물운동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져 점차 확산되고 있는 애견 문화는 개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를 가져오며 개고기 반대운동과 결합하게 된다.

2. 문화상대주의의 함정과 한계

혹자는 인류의 문화는 제각기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의 식용도 우리 고유의 문화이므로 타 문화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통점이 없는 상이하고 다양한 문화라고 하더라도 문화로서 나타난 어떤 사실에 대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적 비약을 정교한 논리로 발전시킨 일종의 가치상대주의가 바로 ‘문화상대주의’이기 때문이다.²⁾

우리 사회에서 개고기를 식문화로 옹호하는 근거로서 문화상대주의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그러나 문화상대주의는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를 넘어서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할례는 문화상대주의의 기준을 통해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보편적 가치 기준인 인권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위주

1) 남유철 :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국제 전략 투자 컨설팅 회사 ‘프린시피아’ 대표

2) 남유철 : 개를 위한 변명 60쪽

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고려장³⁾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때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를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전통 또는 문화였다는 역사적 근거에 빚대어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윤리적 기준을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동물권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반론은 동물권리/동물복지 논의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문화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문화상대주의 논리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문화가 다르면 가치도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의 ‘당위’로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다양하고 상이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왜 그러한 가치가 지속되고 옹호되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결국 문화상대주의는 현재의 상황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⁴⁾

몇 년씩 정들여 기르던 누렁이가 보신탄용으로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는 어린아이의 눈물에 과연 문화 제국주의의 추종이라는 비난을 가할 수 있을까? 개고기 반대운동의 원천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누렁이와 텃굴며 뛰어놀던 어린아이의 눈물에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인류와 개라는 동물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지역적·문화적 논리를 앞세워 제한할 수는 없다.

3. 개고기 반대의 본질

가장 많이 회자되는 개와 개 도살에 관한 일화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기 위해 개를 몽둥이로 심하게 두들기던 중 개가 달아나게 되었다. 피를 흘리며 도망가던 중에도 주인이 개를 부르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시 주인에게 되돌아오고, 그 개는 결국 고깃감이 되기 위해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유의 일화는 예전부터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단순한 패턴의 사건과 일화, 그리고 누렁이와 텃굴며 놀던 어린아이의 그 눈물이 개고기 반대 의식의 꾸준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서구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애견 문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 식용화의 역사에서 볼 때 중국의 명·청 시대에는 개의 충직함을 기려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까지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4년 5월 28일에 서울시경찰국장의 지시로 음식점에서 개장국(개고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했다고 한다. 이를 위반하는 음식점은 영업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판매금지는 ‘비문화적, 비위생적인 음식’이라는 이유에서였다.⁵⁾ 물론 당시의 언론을 살펴보면 이 판매금지령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볼 때 개장국금지령은

3) 늙고 병약한 사람을 구덩이 속 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다가 그곳에서 죽으면 장사를 지내던 풍습

4) 남유철 : 개를 위한 변명 85쪽

5) 동아일보 1954년 5월 31일자 기사

서민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처사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개고기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의견이 분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개 식용화 반대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위의 전개 방식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왜 개만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개 식용화 반대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인간의 동물 이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데에 있다. 그에 더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개가 인간의 생활권 안에 함께 들어와서 인간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물론 흔히들 주장하는 것처럼 소나 돼지, 닭도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물에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인간 정서의 발현이다. 하지만 개를 둘러싸고 이어져온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넘어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모든 동물을 도구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것보다 정서적 바탕에 근거할지라도 동물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동물을 이용해온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 동물에 대한 감성과 연민

고기를 포함한 먹을거리가 흔하지 않았던 과거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던 ‘개’를 식용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매우 좁았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고 풍부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는 현대에는 개를 고기로 이용해야 할 당위성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간에게 개는 먹을거리, 즉 식재료의 개념에서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 개념으로 이동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애견 문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애견과 식용개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려는 상황에서 모든 애견가들이 개고기 반대를 견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고기 반대여론이 애견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들이 개고기 금지 여론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는 개의 ‘친화성’이 강조되며 개고기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데, 개고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고기에 대한 반대 주장이 비논리적이며 감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마치 논거마저 갖추지 못한 주장으로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를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먹고 싶은 욕구’, 즉 ‘탐식’을 기반으로 하며,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 혹은 욕구도 ‘인간친화적인 동물에 대한 연민의 감정’보다 우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링컨이 마차를 타고 가던 중, 새끼 돼지들이 물에 빠지자 어미 돼지가 강기슭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발견한다. 그 광경을 본 링컨은 마차를 급히 멈추게 하고 개천에서 새끼 돼지들을 구해주었는데, 링컨의 친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작은 사건이 자네에게 어떤 이익이 있기에 그런 수고를 하였는가?”하고 하자, 링컨은 “이것이 나의 이익이네. 내가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들을 그냥 지나쳤다면 온종일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나? 나는 마음의 평화라는 이익을 얻은 것일세”라고 대답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한국에서만 연간 1,300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되고 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 수많은 돼지가 인간에게 먹이기 위해 당하는 폭력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항거는 하지 않으면서 몇 마리의 새끼 돼지에게 자비를 베풀고 마음의 평화라는 이익을 얻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개인의 감성이나 정서의 문제이다. 그러나 개개의 사회 구성원의 감성이 그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루며 때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주관적인 감정을 한 개인이라는 범위로 한정지을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여성주의(feminism) 철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자신의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인간이 인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동물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애정과 감성을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관계로 바라보았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여성과 아이의 관계와 유사한 ‘돌봄’(caring)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⁶⁾

인간과 더불어 살며 정서적으로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개’에 대한 감정을 비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직접 낳아 키우는 아이에게만 모성애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모성애에 대한 논리적 입증은 인간 친화적 동물인 개에 대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때문에 여성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인간 앞에서 한 없이 무기력한 동물에 대한 애정과 감성’으로 접근하려는 자세를 ‘비논리’라는 구조로 인식하려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그런데다 수많은 종의 동물 가운데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볼 때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개에게 특히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인간과 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동물을 식탁 위의 먹을거리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개의 식용 금지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발현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 정서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더불어 이것이 식육과 정서에 한정된 선택의 문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와 보편적 정서의 흐름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6) 남유철 ‘개를 위한 변명’ 중 192쪽 재인용



Ⅲ.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비판



양돈산업의 경우 1998년에서 2007년까지 농장의 수는 63.6% 감소했으나, 사육두수는 27.3% 증가했다. 이는 곧 자본잠식에 의해 생계형 소규모 농가는 폐업을 하고 축산농장들이 점차 기업화되었다는 설명이 된다. 이것을 식용 목적 개 산업에 접목해 유추해 볼 때 그동안 개고기 금지의 절대 장막의 역할을 해온 생계형 종사자들 상당수가 퇴출 당하고, 개고기가 더욱 산업화되기 위해 자본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고기가 합법적인 축산업으로 편입되면 축산관련 기금 수혜 자격이 주어짐으로써 개고기 산업은 대형화되는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현재 법적으로 모호한 위치에 있는 개고기 때문에 불거지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 그리고 동물 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 도살과 유통을 합법화하는 주장을 접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공장식 축산업과 축산으로서의 개 사육이 적합한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현대의 축산업은 집약적 축산 또는 공장식이라는 특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한군데에 많은 수의 동물을 모아놓고 사육하는 것과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고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동물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⁷⁾ 공장식 축산 환경은 높은 생산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동물의 자연적인 습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아 성장 환경의 부적합성, 신체 훼손, 질병 등에 노출됨으로써 성장촉진제, 과다한 항생제 사용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농장 동물은 각각의 동물 중에 적합한 생활환경이 철저히 무시된 사육 환경에서 도살에 이를 때까지 극도로 무료하게 생활한다. 이러한 단조로움과 자연 습성을 거스르는 환경에서의 생활은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때로는 동물이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출생에서부터 사육과 운송, 그리고 도살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에 걸쳐 가혹 행위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산란계의 경우 달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환우(forced moulting)⁸⁾와 부리 자르기가 있으며, 돼지는 태어난 지 10일 이내에 이빨과 꼬리를 잘린다. 강제 환우

7) 「한국농장동물실태조사보고서 2006 돼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8) 강제 털갈이: 달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암탉을 길게는 10일까지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사육법

는 닭의 자연적인 생체리듬을 거스르면서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서며 그 외의 신체 훼손은 과밀도의 사육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행동의 하나인 카니발리즘(cannibalism)으로 인한 상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살은 종종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다. (사)한국동물복지협회는 소, 돼지, 닭의 사육과 도축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합법적인 도축이 동물의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기 또는 가스에 의해 기절시키는 돼지의 경우 완벽한 기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살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닭도 완벽한 기절에 이르지 못한 채 목이 절단되어 고통스러



운 날갯짓을 하며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닭들은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회전칼날로 이동하게 되지만 칼날을 통과하면서 목이 절단되지 않고 그냥 지나친 닭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럴 경우 닭은 의식이 완전히 잃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담긴 후 털이 뽑히게 되는 경우이다.

공장식 축산업의 특징 중 하나인 밀집 사육은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늘 안고 있다. 최근 몇 년째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집단 사육되는 동물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에게는 과다한 항생제가 투여된다. 항생제 내성이 형성된 육류는 인간이 질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 또한 공장식 축산업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밀집 사육 형태에서 동물의 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정비례하며, 배출된 오염물질은 수질을 오염시킨다.

수요를 주도하는 공장식 축산업은 세계의 빈곤을 가중시키며 인류의 식량난에도 영향을 끼친다. 유엔 세계식량이사회(World Food Council)는 현재 가축을 먹이는 데에 들어가는 곡물량의 10~15%를 인간을 위한 식량으로 전환할 경우 세계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020년까지 선진국들의 육류 소비를 50% 줄일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영양 결핍으로 고생하는 3,600만 명의 어린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⁹⁾

생산량에 집중한 공장식 축산업은 인간의 공중보건과 식량난의 가중, 환경오염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인간은 기존의 축산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위협당하고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고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개마저도 축산에 편입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이 새로운 부담을 떠안아야 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산업목축 : 세계 빈곤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제니스 콕스 WSPA



IV. 실태 조사



이 보고서에 사용된 조사 자료는 서울, 인천, 경기, 전라, 제주 지역 내의 14개 구역의 61개의 개고기 거래시장 및 사육과 도살, 경매 업소를 중심으로 조사된 것이며, 비교적 큰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과 도살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시설들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정부 및 관련 단체에서조차도 통계 자료가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시설물들은 대부분 무허가로 비닐하우스 또는 간이 건물로 지어진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 사육장의 위치 파악과 조사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전체적인 농장 및 도살장의 통계는 생략하고 사육과 도살 과정에 대한 실태만 기록하였다.

1. 개 사육·도살 실태와 개고기 유통에 대한 통합정리

가. 개 및 개고기 공급 경로

식용으로 유통되는 개들의 공급처는 다음과 같았다. 개 사육농장, 중국에서의 수입, 가정에서 사육하던 개, 떠돌이 개, 지방자치단체 위탁 보호소, 애견 번식 및 판매업소, 농가의 소규모 사육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최대 공급처는 개 사육농장이다.

유통 경로는 중간 상인에 의해 각 공급처에서 도살장으로 공급된 후 도살장에서 식당 또는 소매인으로 판매되거나 개 농장에서 직접 도살해 식당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되기도 했다. 농장에서 직접 도살하여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개 농장은 외형상으로는 영세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육 규모와 방식은 집약식/공장식 축산업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한국의 개고기는 관습이라는 개념을 넘어 점차 공장식 축산업의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당량의 개고기가 중국산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개고기 판매업자들은 개고기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주장하고 있고, 개고기 유통은 음성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세계일보는 2006년 8월 9일자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시중에는 현재 보신탕집 등에서 판매되는 개고기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국내 토종 개만으로는 수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신탕업소들의 설명이다.'¹⁰⁾ 그런데 현행법상 개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중국산 개고기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밀수입에 해당된다. 2006년 7월 20일에 52마리의 개들을 중국에서 러시아를 경유해 한국 속초항으로 반입하려다 속초세관에 의해 적발된 사건¹¹⁾은 중국에서 상당수의 개들이 수입되고 있음을 잘 알려주는 사례이다.

개고기 합법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가에서 수 마리의 개를 사육해 팔아서 그것을 부수입 삼아 살아가는 영세 농가들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몇 년 전

10) 세계일보 인터넷 2006년 8월 9일 '아직도 복날에 보신탕 드십니까?' 중 - 김기환 기자

11) 1인당 4마리까지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 수입업자가 개 52마리를 영세교역업자 26명에게 소유권을 나누어 주고 속초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속초세관에 의해 적발됨. 당시 중국에서 러시아를 경유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개 30여 마리가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다가 질병에 감염되어 죽었고 나머지 개들은 동물보호협회에서 인수함. 개들은 주로 도사견과 세인트버나드 등 대형견이었음

만 해도 도시 지역을 벗어나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농가들마다 개를 키우던 흔적인 뜰장¹²⁾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아직도 그러한 흔적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영세농가에서 개를 키우던 뜰장들은 상당 부분 비어 있다. 식용 유통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의 개 사육은 수익성이 약해 농가 부업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서울 근교에 있는 인천, 경기 및 전국의 대도시 주변은 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곳에 있던 개 농장들은 점차 폐쇄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개고기 거래가 호황을 맞고 있다. 이를 두고 개고기 옹호 측에서는 수요자가 많은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공급처의 부족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결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공급처의 부족은 가정에서 길러지던 상당수의 반려동물들조차 식용으로 유통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현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도살의 위기에 처한 유기견¹³⁾들을 볼 수 있었다. 이 개들은 한때 가정에서 인간에 의해 돌보아졌던 개들이므로 뒤바뀐 환경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개들도 있었는데 개의 이런 행동들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기견들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실태에 대한 책임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물론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위가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록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정서 교감을 나누며 살던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서 찾아야 한다.



12) 개의 분변이 밑으로 쉽게 빠져 내려갈 수 있도록 바닥에 구멍이 뚫린 철망 등으로 만들어진 개 사육장.

13) 단순히 유기견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를 분실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과정으로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된 개들을 포획해 식용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나. 비위생적인 사육과 항생제 오남용의 필연성

개들에게 먹이로 공급되는 것은 음식점 등에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잔반(殘飯)이다. 사육자들은 개들에게 잔반을 먹이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다. 생산원가와 거래가격을 비교할 때 사료를 구입해 급식하는 것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것과 개들에게 잔반을 먹여야 지방층이 얇은 양질의 고기가 생산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잔반을 급식하는 것은 개들의 건강과 농장의 위생 상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잔반통의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고, 잔반은 부패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검단의 개 농장에서는 잔반통에 몰려든 쥐의 크기가 보통 쥐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발육 상태가 매우 좋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쥐가 풍부한 식량을 공급받은 탓인데, 이렇듯 개의 먹이에 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질병의 매개체를 전혀 차단하지 않아 개들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개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호흡기 질병에 매우 취약한 동물이어서 집단으로 사육할수록 감염 속도는 매

우 빠르고 치명적이다. 때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가족에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¹⁴⁾, 이러한 관행은 개 농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개 도살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게 사용된 항생제의 양과 종류에 대한 통계가 없다. 비록 통계 자료는 없지만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들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점과 개의 사육 환경 및 관리 상태를 보았을 때 축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를 사용할 우려와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실태는 돼지, 닭 등의 가축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 전기 도살의 잔혹성

한때는 개를 몽둥이로 두들긴 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질식사시켜 죽이기도 했지만 최근엔 전기충격을 가해 죽이는 전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살을 병행한다. 전살의 경우 220V의 전압에 연결된 전기봉을 이용해 개의 눈이나 입에 전기충격을 가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기도살을 일종의 안락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제시하는 전기를 이용한 도살법은 도살장에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전기 충격을 가한 후 동물이 완전히 무의식이 된 상황에서 방혈(防血)을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은 종종 비인도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개 도살시 이용되는 전기충격은 개를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도살 현장을 목격했을 때 한



14) '축산물 항생제 오남용 실태와 개선방향' 참여연대 2005 - 2002년 각국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량 비교에서 한국은 스웨덴의 29배, 덴마크의 20배, 미국의 6.3배, 일본의 2.5배의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번의 전기충격으로 죽음에 이르는 개들은 없었다. 전기봉을 처음 가격 하면 개의 몸이 마비가 되기는 하나 여전히 의식은 남아 있어서 대개 두세 번 이상의 전기 충격이 가해져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전기충격을 가하는 시간은 도살장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첫 번째 가격은 2초 이내, 두 번째 이후의 가격은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기도 했다. 전기기구 상태가 불량한 도살장에서는 전기 충격을 받은 개가 의식을 잃는커녕 오히려 전기봉을 입으로 물어뜯으려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것은 전기충격 후 즉시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잔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전기충격이 가해진 후 털을 뽑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불과 2~5분이 소요되었는데, 이처럼 짧은 시간에 개가 완전하게 죽음에 이르렀으리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경우 개는 몸만 마비될 뿐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털이 뽑히는 고통을 겪은 후 죽음에 이른다.

국제 규모의 동물복지단체인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의 과학적 분석에서는¹⁵⁾ 전문적 훈련의 부족, 전기도살의 비인도성 등과 연관지어 개의 전기도살에 채용된 여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고 있다. 의식 있는 동물에게 전류를 가한 뒤에는 심장 부위의 섬유성 연축

으로 인해 동물이 죽을 수 있다. 단일 전극을 가하거나 전신이 전류에 노출되어 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극도의 고통을 유발한다. 최근 미국 도축장의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하고 있는 동물복지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SUS: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도 개를 전기 도살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도살 방식으로 규정한 바 있다.(1999, 2002)



15) WSPA Guidelines for Euthanasia of Dogs and Cats 2007, is a referenced review categorizing methods used for euthanasia. In addition, WSPA have also reviewed electrocution of dogs in other programme areas.

라. 개고기 산업, 인도적 기준 정립의 불가능성

국제적으로는 동물의 인도적 관리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학적 지표로서 ‘동물의 5대 자유’¹⁶⁾가 인정되고 있다. 조사된 농장과 운송, 도살의 전 과정들은 5대 자유의 평가 기준조차도 심각하게 거스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 농장 또는 도살장에서는 개를 좁은 공간의 뜰장 혹은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했다. 비바람과 땀별에 개가 방치되는 구조이며 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다. 개들이 무리지어 살며 사회성을 형성하는 기회도 차단당하고 인간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도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 있는 개들에게서 우울증과 정서불안, 의미 없는 반복 행동 등 정신적 이상 징후들이 관찰되며 강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도살장과 경매장에는 상처 입은 개들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낫선 무리들과 섞여 서로 싸웠기 때문이다. 개를 옮기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개들의 공격성을 제압하기 위하여 밧줄로 목을 강하게 조이거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는 등 가혹행위가 행해진다. 개들을 운송할 때에는 좁은 철망에 여러 마리를 몰아넣어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송 중 개들 사이의 싸움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듯 공격성이 있는 동물일수록 다루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가혹행위들이 가해진다. 이런 행위들은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공격적인 동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높은 비용을 유발한다면 이는 곧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대량 축산이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은 동물의 인도적인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곧 개고기 산업이 잔혹성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16) 동물의 5대 자유 - 영국 FAWC.

① 갈증·배고픔 및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고통, 상처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⑤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2. 개고기 산업 합법화 위험성에 대한 예측

사양화되는 부업형의 소규모 개 사육과 도시 개발로 인해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개 농장, 환경오염 문제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폐수배출 처리 문제와 위생 문제를 바탕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개고기 합법화 논쟁 등은 개 사육이 자본을 바탕으로 한 집약화 및 산업화로 재편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자본형 산업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제의 평화유통과 제주도 서귀포시 선흘리의 개 농장, 아지매사철탕의 개고기체인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개 도살 및 유통업을 하는 평화유통의 경우 2006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김제시에 신고한 바 있고, 제주도 서귀포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개 농장은 2001년 당시 북제주군으로부터 사육시설 승인을 받고 제주도 전역에서 사육하는 개들을 육지로 유통시키는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개 도살이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을 합법의 범위로 끌어낸 경우이다. 당시 관련된 행정기관은 개 도살을 묵인했다 점에서 동물보호가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음식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병원체는 자연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식중독’이라 부르고 있지만 일반적인 식중독과는 차이가 있다. 식중독이 자연 상태에서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 천연 유독물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인 반면, Food borne disease는 음식 내의 병원성 박테리아, 기생충, 감염성 단백질로부터 비롯되는 질병인 것이다.

식중독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음식이 조리가 잘 되지 않아서 부엌의 위생 상태 불량으로 발표되곤 했으나, 오늘날 문제가 되는 질병의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감염된 식육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해 있는 질병으로 Food borne disease의 발생 수는 미국에서만 매년 7,600만 건이며, 이로 인한 입원환자는 매년 32만5,000명, 사망자 수는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업의 산업 규모를 증가시키려는 오늘날의 추세는 여러 가지 식품 안전의 문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¹⁷⁾

한국의 모든 축산업은 이미 공장식 축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도살이 합법화되는 많은 개 사육조차도 외형만 영세해 보일 뿐 사육과 유통 구조는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가 축산물 가공산업의 한 분야로 합법화될 경우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과 위생의 폐해가 더욱 가중되게 될 것이다.

17) Danielle Nierenberg, Worldwatch Institute and Leah Garces,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Industrial animal agriculture—the next global health crisis」 WSPA2005

V. 결론

예로부터 개는 인간 생활에 밀착되어 살아왔으며, 현재에도 전반적인 인간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는 동물이다. 이러한 동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그 어떤 설득과 변명, 제도화라도 상쇄하지 못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반려동물’(伴侶動物)로 명시하고 있다. 비록 법률상으로는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나, 개의 지위를 명시한 최초의 법률적 사건이다. 그와 더불어 유기동물과 안내견, 맹도견 등 인간을 위해 사육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인간과 더불어 살았거나 인간에게 기여한 동물은 그 공로를 인정해 실험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개의 지위가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적 검토 외에 고통을 표현하고 해소 받기를 표현하는 존재를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될 때에는 윤리적인 타당성 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고기 문제는 식품위생 문제만 현실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개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도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축산물은 체계화된 시스템에 따라 사육과 도축, 가공 등의 단계마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축산물에는 유해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유해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위험성에 비해 얻게 될 이득이 더 클 경우 식품으로 편입해 이용해 왔다. 그래서 많은 유해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슈퍼박테리아나 변종바이러스,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프리온 단백질(Prion Protein)의 출현 등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면서 인간에게 식품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계속적인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개를 축산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식품위생의 안전장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단절이 더 중요한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개고기를 둘러싸고 좁혀지지 않는 대립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보호 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개를 보호 동물과 식용 동물로 나누는 이중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관계자들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가치지향적인 사회 구현 중 하나로 개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단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육 및 도살, 유통 실태



업소	위치	영업형태	견종	도살방법	가격	문제점	추이	기타
모란 시장	경기도 성남	살아있는 개 전시, 판매. 상설매장 31개소, 계류장 및 도살장 약 7개소.	누렁이 (진도견 혼혈, 도사견 혼혈) 외 소수의 가정견.	전살(電殺)	생체 근당 5,000~7,000 원 선. 홍정가능.	위생·건강 상태 불량, 개 내장 먹이로 공급. 싸운 흔적 과 상처 방지. 오페수 방출.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도살.	가게 수 일정하게 유지.	한국 최대 규모 거래시장. 전국 개고기 거래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적도 있었음.
청량리 시장	서울 청량리	살아있는 개를 전시, 판매하는 5개 점포.	다수의 누렁이와 소수의 가정견.	전살(電殺)	· 7,800원/ 생체 600g · 7,500원/ 지육 400g 홍정가능.	모란시장과 비슷.	점포 수 감소.	2005년 유기견 식용 유통 적발
황학동 중앙 시장	서울 황학동	살아있는 개를 전시, 판매하는 소규모 5개 점포.	다수의 누렁이와 소수의 가정견.	전살(電殺) 일부 점포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살.	· 7,500원/ 생체 600g · 6,500원/ 지육 400g 홍정가능.	다른 지역에 비해 사육밀도가 높음.	점포 수 감소 추세.	
영등포 시장	서울 영등포	도살된 개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도·소매상. 지육만 판매.	알 수 없음.	도살행위 없음.				
인천 계양동 소매점	인천 계양동 번화가 인근 동산 귀퉁이	3개의 업소. 한 업소 당 수용능력 30~50마리 정도의 규모. 도살된 개를 냉장고에 보관 하여 고기 판매. 식당유통 병행.	다수의 누렁이. 소수의 말라뮤트도 발견.			개들의 상태는 비교적 건강해 보임.		오랜 기간 영업. 도심지 인근이라 단골소비자 다수 확보.
하남시 P농장	경기도 하남시	어린 강아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간상인에게서 개를 수매하여 도살, 판매 하는 것으로 보임. 도매상.	약 100여 마리. 좁은 뜰장에 2~5마리씩 수용. 누렁이, 진돗개 혼혈견, 가정견.	전살(電殺)		개 손질, 세척 오페수가 여과장치 없이 하천(한강)으로 바로 유입.	개 도살 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중.	외부에서 개 농장임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지어짐. 오페수 배출 문제 제기된 지역.
하남시 X농장	경기도 하남시	케이지 사육.	누렁이 200여 마리, 스파니엘 5마리도 목격됨.			애견농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개들도 유입될 가능성.	개 도살 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중.	외부에서 개 농장임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지어짐.
하남시 S농장	경기도 하남시	뜰장 시설 갖춘. 식당으로 고기 유통. 주로 중간상인에게서 개 구매 후 도살, 판매하는 것으로 보임. 도매상.	대다수 누렁이 가정견(비글, 달 마시안 등) 200여 마리.	전살(電殺)	8,000원 /생체 600g 8,000원 /지육 400g	개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임.		개 도살시 발생하는 오염물이 한강 상류를 오염시켜서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됨. 운송 시 비닐천막으로 덮어 환기/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개들이 운송용 케이지 안에서 짖는 것을 목격.

업소	위치	영업형태	견종	도살방법	가격	문제점	추이	기타
검단 개농장	경기도 김포시	소유주 3명으로 각각 자기 개 관리. 소비자가 직접 와서 구매. 식당 유통. 번식, 사육, 도살, 판매.	약 1,500여 마리(진돗개 투견 500여 마리 포함)	교살(絞殺)		개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으나 다량의 항생제 투여하는 것으로 추정. 짧은 줄로 묶여 있거나 뜬장에서 사육. 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공급. 쥐 다수 발견.	최근 3년 호황.	다수의 주사기 발견(항생제 투여 추정). 도살은 새벽에 이루어짐. 번식 시 강아지 생존율 80%.
대곶 X농장	경기도 김포시	번식, 사육, 도살, 판매.	누렁이, 하운드 종 혼혈견 (교잡하여 번식) 약 1,000여 마리.	전살(電殺)		음식물 쓰레기 사료로 공급. 비좁은 뜬장에서 사육. 주변 환경 불결. 도살된 개의 사체에서 방출된 내장에 파리 떼 가 들끓고 있음.	불황과 호황의 주기 약 3년. 현재 호황기.	단일농장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 강아지의 생존율 이 30~40%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인천 산곡동 개농장 단지	인천시	8개 정도의 농장들이 모여서 영업 중. 식당에 고기를 납품 하는 중간 상인과 거래. 번식, 사육, 도살, 판매.	페키니즈, 말티즈 등도 발견.	전살(電殺)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기 중에 휴먼지가 다량 발생. 개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육 환경 매우 불결. 파리 다수 존재.	추석 명절 이후 판매량 증가 예측하고 있으나, 도로 공사 완료 후 이전이 어려워 폐업할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의 도시 개발정책에 의해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건물들 일부는 철거 중. 대다수의 개 농장들은 영업지속. 도로공사 완료 후 농장들도 철거 예정.
선흥리 농장	제주도	계류장 역할. 조합을 결성하여 제주도 내의 모든 개들을 육지로 유통.	개들의 숫자가 많지 않음.	현재 도살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함.				전국에서 유일 하게 지방정부 로부터 2001년 허가받은 사육 시설. 강한 항의 받음.
김제시 C 경매장	전라북도 김제시	경매 매일 실시. 전북 개 총 경매량의 50% 정도 차지. 말복 직후 1~2톤 트럭 약 15대 규모. 경매장에서도 개들을 수매하여 도살 후 냉동상태로 보관하여 물량 공급 조절.	투견에 이용 되었음직한 개들도 거래.		5,500원 /생체 600g 5,500원 /지육 400g	심각한 피부병을 가지거나 병든 개, 탈장된 개 다수 목격. 좁은 케이지에 구겨지다시피 감금된 채 거래.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물 공급 없음.		전라북도에 개 경매장 5개정도 영업 중. 도살시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정화시설을 구비 하고 있으나 작동 되지 않음. 2006년 5월경에 환경사범으로 고발됨.
평화 유통	전라북도 김제시	번식과 사육은 하지 않음. 개를 수매한 후 도살, 유통. 계류장 시설 갖춘. 도살 전문장.	누렁이 외에 말라뮤트, 피레니즈, 달마시안 등도 발견.					도축장의 오폐수 처리시스템 시설에 한하여 김제시로 부터 승인 받음. 동물단체들의 강력 한 항의가 있었음. 오폐수 처리시설 투자금 3억원 주장. 도살량 최고일 때는 1일 최고 120마리 까지 도살.

저 자

조희경 (사)한국동물복지협회 · 동물자유연대 대표

도움주신 분들

박은정, 이정애, Kate Blaszak(WSPA Asia)

본 보고서는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가 제작 ·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독자적인 내용과 사진은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와 배포신청은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133-07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 화 02)2292-6337

팩 스 02)2292-6339

전자우편 animals@animals.or.kr

웹사이트 <http://www.animals.or.kr>